

의향·예향·미향... '무등'으로 사는 광주의 오늘을 읽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광주

김준 지음

"무등산과 영산강이 없었다면 광주라는 도시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일이다. 광주에 머물렀던 선사인들의 흔적은 영산강변에 있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도구를 만들고 옷과 집을 지어서 살았다. 그리고 춤과 노래로 하늘과 땅에 감사했다. 영산강 주변에 모인 크고 작은 집단은 국가를 이루어 백제와 다른 마한이라는 세력을 형성했다. 새로 들어선 상무지구나 수완지구, 첨단지구 역시 영산강 상류에 만들어진 도시들이다. 무등산 안으로 도사가 확대되었다. 호환을 두려워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본문 중에서)

광주의 자연환경을 거론할 때 첫손에 꼽히는 것은 '무등산'과 '영산강'이다. 예나 지금이나 영산강과 무등산은 광주의 본질적인 터전이다. 근대 이전에는 의식주의 공간으로 이후로는 힐링, 자연 경관 등의 가치로 주목을 받는다.

광주를 일컫는 의향, 예향, 미향은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삼향(三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사는 없다.



5·18과 의병, 남종화와 남도소리, 남도의 맛과 재미는 외지인도 인정하는 광주만의 자산이다.

광주 속살을 날날이 들여다보면 그것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무등산 아래 굽이 없이 어우러지는 도시, 영산강과 이웃한 도시,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를 보게 된다.

'섬문화 전문가' 김준 박사는 곡성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기 무렵 광주로 이사 왔다. 이후 줄곧 광주에 살면서 광주는 물론 전남, 전북을 오가며 역사와 문화, 생태를 연구하고 글을 쓴다. 이번에 김 박사가 펴낸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광주'는 정체성이 견고한 의향이자 도시 곳곳에 예와 미가 넘치는 광주를 이야기한다.

책은 현대적인 스타일로 광주를 안내하는 도시 인문학서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다.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광주정신' 사용설명서인 셈이다.

먼저 저자는 '도도히 흐르는 광주정신'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 중심 상권인 충장로는 의병대장 김덕령의 호에서 연유한다. 재봉로와 죽봉로도 의병장 호를 딴 도로명이다. 광주에 의병장 이름이 도로로 명명된 것은 의로운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광주 청년들은 화순 너릿재를 넘어 운주사와 조광조를 찾곤 했



양림동 '아트플리곤' 앞 호랑가시나무는 일제강점기 선교사들이 심은 수령 400년 고목이다. 이 주변을 호랑가시나무 언덕이라 부른다.

다. 정형화된 틀과 제도를 초월하고자 하는 민중의 염원을 거기에서 찾았다. 민중의 염원은 광주 정신의 한 축이자 미래 도약의 토대였다.

저자의 발길은 도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향한다. 지금은 사라진 역사 공간 경양방죽과 광주읍성을 비롯해 근대화의 요람인 양림동, 광주 최초 도시공원인 광주공원도 둘러본다.

요즘 '길 위의 인문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좌와 답사가 혼합된 프로그램의 기원은 '누정'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의 누정은 약 600개가 넘는데, 사라진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2500개에 달한다. 풍암정, 취가정, 환벽당, 풍영정 등 광주 누정의 역사와 가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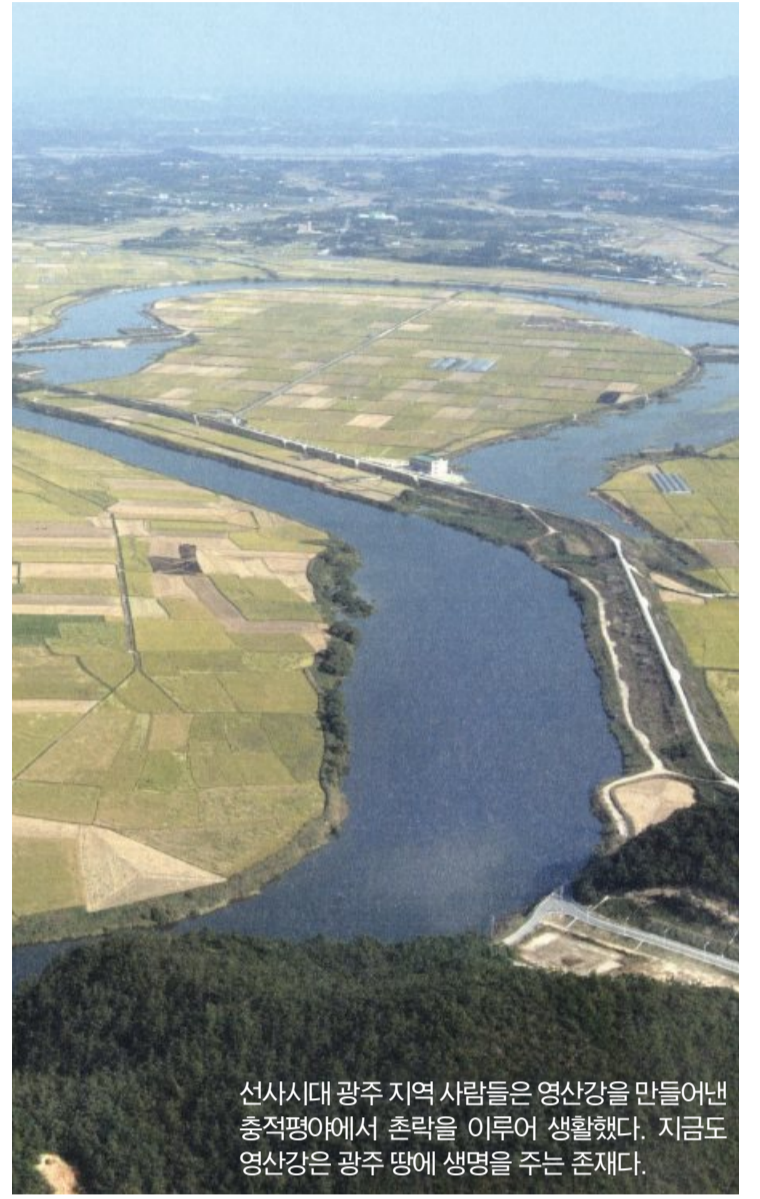
저자는 도시의 산책을 통해서도 광주의 모

습을 들려준다. 1913송정역시장과 전통시장들, 도시재생의 모범답안과도 같은 푸른길 공원,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주의 경리단길 동명동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과 청년이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치는 청춘발산마을,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책에는 남도의 맛과 풍류, 기억해야 할 인물에 대한 글들도 포함돼 있다. 남도음식의 집합체인 한정식, 떡을 치듯이 만들 어낸 송정떡갈비, 광주 맛의 진수 김치가 입맛을 사로잡는다. 이밖에 '썩대머리'를 부른 국창 임방울, 조선 왕을 가르쳤던 기대승, 남종화의 거목 허백련, '나두야 간다'의 시인 박용철 등을 매개로 광주의 예와 풍류를 가늠할 수 있다.

<가지·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사시대 광주 지역 사람들은 영산강을 만들어낸 충적평야에서 촌락을 이루어 생활했다. 지금도 영산강은 광주 땅에 생명을 주는 존재다.

리얼 페이스

치넨 마키토 지음, 민경옥 옮김

현직 의사이기도 한 치넨 마키토의 소설에는 의료 현장이 곧잘 등장한다. 수술 현장의 모습은 읽는 이에게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한다. '포스트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칭호와 함께 3년 연속 서점대상 후보에 올랐던 작가인 마키토는 의사의 직업의 특성상 어느 소설가와와는 다른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이번에 그가 펴낸 소설 '리얼 페이스'는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의료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돋보인다.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답게 치밀한 복선들이 얽혀 재미를 선사한다.

성형외과 의사 히라키 다카유키는 천재라 불릴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그는 스스로를 인체의 예술가라 생각하며 돈만 되면 어떤 의뢰에도 응한다. 그러나 그의 밑에서 근무하는 마치고와 의사 아사기리 아스카는 히라키의 일하는 방식과 철학에 대해 반감을 갖는다. 무엇보다 오직 아름다워지기 위해 얼굴에 칼을 대는 행위에 대해 회의적이다.

히라키에게는 다양한 의뢰인들이 등장한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성형중독에 빠진 연예인, 아내의 얼굴을 전처와 닮은 모습으로 바뀐 대기업 회장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차례로 날아드는 기묘한 의뢰를 보면서 아스카는 성형외과 세계와 의사 히라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히라키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4년 전 용의자가 도주해 미해결로 남겨진 수범으로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을 죽이고 그들의 얼굴을 그대로 본뜬 데스마스크를 만들어 남긴 엽기적 살인사건에 히라키는 의문의 행동을 보인다.

<소미미디어·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책과 한국 현대사 이야기

부길만 지음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체요절'. 각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최고 금속활자본이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재다.

현재 K컬처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K팝, K드라마 등은 한류 열풍을 이끄는 중요 문화자원이다.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의 '책' 또한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책과 콘텐츠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에이전시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K컬처의 새로운 자원으로 떠오른 K책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대표적인 출판학자 부길만이 펴낸 '우리 책과 한국 현대사 이야기'는 인쇄 문화의 종주국이라 할 만큼 인쇄와 출판에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출판의 현대사를 정리했다.

책은 크게 일제강점기 출판, 해방 이후 출판으로 나뉜다. 일제시대 출판이 탄압을 당했지만 출판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다수 서적을 발간했다. 물론 다수의 서적들이 발매 중지됐으며 압수를 당했다.

해방 이후에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저술들이 많이 나왔다. 민족의식의 발로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언어를 인간 존재와 인간 세계의 근거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의 단위는 1970년대에 더욱 커졌고, 1980년대에는 드디어 100만 부를 넘어서는 밀리언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밀리언이 아니라 100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판은 여전히 진화중이다. 책을 통해 격동기 한국 출판이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역사적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유아이북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수화가 만든 세계

조규희 지음

산수화의 사전적 정의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이다. 서양화에서는 풍경화가 역사화나 초상화, 종교화의 배경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산수화의 위상은 독보적이었다.

또한 산수화는 아무나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다. "산수화로 명성을 얻는 자는 대개 사대부"라는 기록처럼 산수화는 그 규모가 방대해서 주로 지식인들이 그렸다. 동아시아 역사 속 산수화는 인물화, 동물화 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장르의 그림이었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강의하는 조규희 박사의 책 '산수화가 만든 세계'는 산수화를 통해 들여다본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산수화의 효과에 주목해 동아시아의 회화 중 자연을 대상으로 한 가장 '순수해' 보이는 산수화가 실제로는 '사실으로' 빚어진 예술 장르일 수 있음을 탐구한다.

조선 후기 정약용은 붉은 매화를 보면서 '질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꽃뭉치게 눈서리 견디어내고 담담하게 티끌 먼지 벗어난" 홍매의 향기에는 진정 속기가 없다고 했다. 정약용이 투영한 이미지는 '세한삼우'였다. 송나라 때 '세한삼우도'가 등장하면서 매화 이미지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대개 이때의 매화는 백매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약용은 시를 지을 때까지 홍매를 보지 못했다고 본다. 세한삼우도 속 매화 이미지가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저자는 그림이 세상에 관여함으로써 세계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서해문집·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